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물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1.(수) 배포 시 배포 2026. 11. 11.(수) 14:00

농식품부,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과잉량 시장격리 등 대책 조기 추진!

- 공급과잉 가을배추 1만톤 수매비축에 이어 3만톤 출하정지 등 추가대책 추진
- 가격하락 지속 시 겨울배추 비축, 가격 차 보전 등 별도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가을배추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지난 11월 3일 발표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에 이어 산지 출하정지, 수매비축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 배추 가격 등 수급상황

올해 가을배추는 재배기간 중 양호한 기상으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김치 소비 감소 등으로 수요는 줄어 가격 약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상순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1,9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 평년보다 32% 낮은 수준이며, 소비자가격도 포기당 3,211원으로 전년보다 14%, 평년보다 20% 하락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9%, 평년보다 3% 증가하고, 12월부터 주 출하되는 겨울배추 생산량도 26만 5천 톤으로 전년보다 7%, 평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김장배추 수요는 약 58만 3천 톤으로 전년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재 배추가 주로 출하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충청남도 서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경상북도 문경 등 중부 지역의 작황이 양호하고, 11월 하순부터 주 출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 등 남부 지역도 현재까지 작황이 양호하여 현재와 같은 양호한 기상 여건이 지속될 경우 김장철 배추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 기존 정부 수급안정대책 추진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지난 11월 3일 발표한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소비 확대, 정부 수매비축, 계약재배 확대 등 다각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배추 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농수산물 할인에 총 640억 원을 투입해 배추, 무 등 김장재료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은 최대 40% 할인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김장 수요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김장 한 포기 더하기' 캠페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협,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김장 나눔행사와 김치 단체 구매를 확대하는 등 김장 소비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김치협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김치 공동구매 창구를 통해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김치 구매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 김치협회 공동브랜드 '한채담' 100% 국산 농산물 사용,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공급 (대한민국 김치협회 누리집 http://kimchikorea.org)

아울러, 시장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1월 중순부터 가을배추 1만 톤을 수매비축 할 예정이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도 확대하고 있다. 농협 계약재배 신청기간을 당초 10월에서 11월까지로 연장하였으며, 11월 상순 기준 농협 계약물량은 가을배추 3만 2천 톤, 겨울배추 5만 2천 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27%, 14% 증가하였다.

이 밖에도 김치업체에 대한 배추 할인공급과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배추를 활용한 김치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3. 추가 수급안정대책 추진

농식품부는 기존 수급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배추 공급과잉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난 11월 6일 농업인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겨울배추 주산지협의체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추가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첫째, 배추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선제적인 출하정지를 실시하여, 시장 출하량을 조절하여 단기간에 배추가 시장에 집중 출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완화할 계획이다.

11월 하순 이후 김장배추 주 출하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 등에서 평년 대비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배추 약 3만 톤(400ha 내외)을 대상으로 출하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하정지 참여 농가에는 정부 수급조절사업(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통해 경영비 이상의 금액을 보전한다.

둘째, 김장성수기 이후에도 배추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경우 12월 하순부터 겨울배추 추가 수매비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배추 공급과잉이 겨울배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남 등 겨울배추 주산지의 생육 및 출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수매 시기와 물량 등은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셋째,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보전 대책을 병행한다.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겨울배추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평년가격의 80% 수준까지 가격 차를 보전('27.1분기)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감소에 대비하여 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한다.

* 수입안정보험 가입면적은 가을배추 2,206ha, 겨울배추 2,308ha로 전체 재배면적의 각각 25%, 59% 수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배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김장대책에 더해 선제적인 출하정지와 추가 수매비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배추 가격 회복과 농가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1-22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